

우리는 하나다.

팬데믹이 프란치스칸 삶과 정의 평화 환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사회로부터 격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보다 빨리 격리를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월 12일에 가족 모임을 갖고 여러 손주들이 그랜드마마(할머니)라 불리는 나는 이제 내 집에서만 머물며 격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손주들과 지내던 나에게는 힘든 일이라고는 알았지만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삼일을 봉사하던 가톨릭 자선단체 사무실도 곧 닫을 예정이라며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뿐아니라 내가 다니던 교회도, 내가 소속한 프란치스코 형제회 모임도 거의 모든 것이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보통의 것들이 하나하나씩 닫는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는 격리된 삶을 4월 1일, 5월 1일 그리고 6월 1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프란치스칸의 기쁨' 간행물이 발간될 때도 격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는 서로를 연결해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직장업무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Go to Meeting, Zoom 그리고 다른 무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카고에서 5월 첫 주에 예정된 국가 정평환(정의 평화 환경보존) 회의를 Zoom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전국에서 3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고 장래의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회의 의제로 올리고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과 세상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회합에서는 Monterey 지역에 있는 Junipero Serra 형제회에서 온 Juliet Spohn Twomey 자매의 말씀 중 지금은 우리의 역사에서 중대한 때임을 깊이 숙고해야 하며 이 팬데믹을 통하여 배울 것이 많다는 그녀의 의견에 감명을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글로벌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곧이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의료 연구자들이 치료와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샌디에고가 문을 닫으면서, 이 멋진 해변 도시를 드론으로 찍어 상영되는 비데오를 통해 만 볼 수 있었는데, 해변에도 주변의 동산에도, 발보아 공원과 향만에도 침묵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까지 폐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들었을 때, 미국에 사는 우리는 꽤 안전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훌륭하고 고도로 발전된 이 나라의 보건 의료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수한 의술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건강 보험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전방에서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보험 카드로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보험이 없어 의료 편의를 받지 못하는 이들과 신원에 관한 질문이 두려워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몹시 슬퍼집니다.

저는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딸과 젊은 친구들이 나를 위해 대신 장을 봐주고 있습니다. 양식을 쌓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며 하루 먹고 사는 네 아이의 엄마들,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가 없는 엄마들, 또는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언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를 아버지들은 어떻게

지낼지? 성체분배 봉사를 하던 양로원도 모든 방문을 금지하였습니다. 저는 양로원에 계신 분들께 안부 인사와 함께 미사를 방송하는 라디오와 방송국에 대한 정보를 부활 카드에 써서, 마치 항공 우주 미션을 하듯이 양로원 문 앞에서 한 친절한 젊은이에게 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방금 전국 여기저기 양로원시설에서 이 바이러스가 돌발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팬데믹이 환경 생태 위기 또는 공중 보건 위기가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심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5 주년을 맞이했던 교황 문헌 '찬미 받으소서' 에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하여 생태계의 훼손뿐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에 주목해야 하며, 그뿐 아니라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에 존경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전 세계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조직을 구축하는데 분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양로원에서뿐 아니라 교도소와 유치장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있는 남녀노소의 피난민들이 멕시코에 임시로 설치된 시설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벌써 몇 달째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법원도 몇 주째 닫고 있는 데다가 곧 열리더라도 미처리된 수많은 사건으로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식물들을 살펴봅시다. 오염으로 죽어갔던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아닌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뿌옇게 걸쳐있었던 공해가 없어지고 있는 계곡을 보세요. 다시 지구가 확실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 것을 더 실감할 수 있는지요? 지존하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에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보편적 형제애를 깨달았는지요? (회칙 2 장 18 절)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구원된 피조물에 상응한 생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지요? (회칙 2 장 13 절) 이 팬데믹을 통해 세상을 더욱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기위해 재속프란치스코로서 고양된 봉사의 정신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는지요? (회칙 2 장 14 조)

팬데믹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현대 삶의 양식이 자연계에 미치는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팬데믹은 우리 모두가 취약한 자들인지, 특히 가난한 이들 노약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자들은 두 배로 심하게 타격받을 수 있는 취약한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느님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제회 차원에서 그리고 전 재속회 차원에서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찰력, 깊은 이해심, 깊은 동정, 그리고 열렬한 헌신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역사에서 중대한 때 입니다. 눈과 마음을 열고 성령의 뜻에 귀 기울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를 존중합시다.

평화와 선!

Patricia Grace, OFS

성 프란치스코 지구형제회 정평환(정의 평화 환경보존) 애니메이터